

통일은 평화의 손님이다

이춘성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윤리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연구원은 2007년 이후로 지금까지 '통일의식 조사'를 해오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3.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2%, 무관심은 24.7%로 2007년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63.8%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난 9년 동안의 조사들 중에서 2007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조사들은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1%~55% 사이에 있는 것을 볼 때, 2016년의 응답은 지난 두 정부 동안의 일반적인 통일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 주목해서 봐야할 부분은 20대와 30대의 응답이다. 보고서는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20대와 30대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답이 7~14%정도 낮아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20대와 30대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식에 있어서도 17.7%, 16.7%로 50대의 11.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의식 조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분석이 있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역사적, 민족적인 통일의 당위성만으로는 통일의 필요성을 설득하기에 어려운 시대가 곧 닥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1. 전통적인 통일 논리

지금까지 우리를 강력하게 설득시켰던 통일의 당위성들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역사적이며 민족적인 이유이다. 객관적인 역사와 민족사를 볼 때, 통일은 우리 민족이 언제나 추구했던 이상향이었다. 한 언어를 사용하고 단군에 뿌리를 둔 동일 민족이지만,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한 국가였던 것은 아니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통일신라시대를 열었지만 여전히 고구려의 유민을 중심으로 형성된 발해로 분열되어 있었고, 이후 다시 고려가 분열된 신라를 통일했지만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고자하는 움직임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역사는 우리가 분열과 통일을 반복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잃지 않았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해 왔다는 것도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통일은 언제나 민족적 대의였던 것이다. 두 번째는 혈통적, 가족적 이유이다. 어느 통일 포럼에 6명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나왔다. 이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통일부에 근무 할 때,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내려온 이산가족의 자녀들이었으며, 자신도 그렇다고 고백하였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아픈 가족사를 고백하는 것이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만큼 통일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힘이 어디에 있겠는가?

통일을 염원하게 만들었던 이 두 가지 전통적인 당위성은 우리 남북한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보편타당한 원리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들은 서로에게 폭력을 정당화했던 전쟁을 위한 논리의 근원이기도 했다. 한국 전쟁은 단순히 북한의 정신 나간 지도자 한 사람의 도발과 공산주의 이념에 경도된 공산당 지도자들의 광기 때문 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들은 민족적이며, 가족적인 연민을 이용하여 남한의 인민들을 해방하고 통일을 이뤄야한다고 북한 주민들을 설득했고 이것이 그토록 광범위하고도 전면적인 전쟁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더 큰 대의를 이루기 위해 전쟁과 폭력은 하찮은 도구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이 큰 대의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생존을 위한 투쟁, 미움과 증오 말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사람이 죽은 잔인한 전쟁이 우리끼리 하나가 되고자 해서 생긴 전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아이러니다.

2. 통일의 트라우마

기독교계의 통일 연구를 담당하는 한반도평화연구원의 전우택 원장은 통일이 어려운 이유를 한국전쟁의 상처가 남북한 모두에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전우택 원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이 트라우마는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트라우마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2014년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로 304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은 지금도 사회적 트라우마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런데 한국전쟁은

남한만 85만 2천명이 죽거나 실종 되었고 111만 5천 명이 부상당하였다. 북한은 120~13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다는 공식 보고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의 상처는 일차원적인 계산만으로도 세월호 트라우마의 4.654배가 넘는다. 이를 인구 비율로 따진다면 이보다도 몇 배나 넘는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과 의사인 전우택 원장은 통일은 국가적 치유의 과정이며, 통일은 그 치유의 목표이자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필자의 가족에게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은 어른들의 생신이나 제사일이 아니었다. 양가의 가장 중요한 날은 다름 아닌 6월 6일 현충일이었다. 친가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서 국군으로 참전하여 수류탄 파편으로 상당한 시력을 잃은 상이용사였다. 지금은 호국원에 동료 전우들과 묻혀계신다. 외가의 할아버지는 가장 치열했다던 백마고지 전투에서 전사하셨다. 당시 어머니는 겨우 한 살이셨고, 스무 살의 외할머니는 시집 온 지 1년 만에 핏덩이를 엮고 남편의 죽음을 맞이하셔야했다. 이 세상물정 모르는 두 모녀에게 국가가 보내온 남편과 아버지의 모습은 몇 개의 뼈 조각에 불과하였다. 그렇게 외할머니는 재혼도 하시지 않고 과부로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동생들을 돌보았으며, 식모살이를 하면서 외동딸을 키웠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를 따라 계모임을 가면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분들이 모여 계셨다. 어느 날 대전 현충원이 조성되고 외할아버지의 묘가 현충원으로 모셔질 때, 흐느끼며 울고 있는 수많은 외할머니와 같은 하얀 소복의 여인들의 모습을 본 경험은 평생 내 머리 속에 도장처럼 새겨져 있다. 이런 집들이 어찌 우리 집만의 일이겠는가.

이렇게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또 손자로 이어지는 트라우마는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다. 첫째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다. 둘째는 북한에



지금 읽기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전우택 외 9인.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대한 적대감과 분노이다. 전쟁이 준 막대한 상실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전쟁은 단순한 이념의 대립이 아닌 가족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비인간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은 상대를 철저히 대상화 시키고, 더 나아가 악마로 만든다. 적을 증오하고 분노해도 되는 대상으로 합리화 시키지 않고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분노의 기제가 그렇듯 분노는 더 큰 분노를 정당화한다. 아퀴나스는 ‘이렇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을 볼 때 너는 우리가 더 분노해도 될 대상이라고 합리화 시키는 죄’가 분노라고 하였다. 그러기에 적대감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매우 이성적인 과정이 그 감정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이나 분노의 상처는 오랜 시간 속에서 망각이란 약을 통해 아물게 된다. 망각은 분노와 적대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망각은 상처 가운데 고통 받아온 개인과 사회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해주는 특별한 선물인 것이다. 이렇게 전쟁의 상처가 아물게 되면, 한 민족, 한 나라였다는 당위성이 다시 회복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통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이다. 시간의 흐름을 인내하고 견뎌서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 통일에 대한 전통적인 두 당위성을 바탕으로 다시 통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대중

들의 일반적인 기대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두 당위성은 역사 속에서 전쟁과 폭력을 합리화 시키는 바로 그 원리 아니었던가?

3. 평화와 통일

앞에서 우리는 20대, 30대가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북한에 대한 적대감도 높다는 것을 보았다. 이에 더하여 『2016년 통일의식 조사』는 20대와 30대가 전쟁에 대한 불안감도 다른 세대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다른 세대에 비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한 응답을 보면 20대와 30대의 경우 대체로 높았는데, 20대의 경우 2011년과 2014년에는 86.1%, 80.8%로 매우 높게 나왔다. 이는 북의 핵 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두려움과 북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 온 보수정권의 대북강경정책도 한 몫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이 어찌 되었건 결과를 통해 볼 때, 미래 세대에게는 통일보다는 평화를 보장 받고 싶다는 궁극적인 안정에 대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안정을 위해 통일을 포기하자는 뜻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피 속에는 ‘한 민족’이라는 지울 수 없는 DNA가 흐르고 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흥 되어야 한다. 역사를 보면 인위적으로 몇 명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DNA가 이끌려 졌을 때, 비극적인 결과와 상처만 남겼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의 결과가 평화’라는 강력하지만 너무 단순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평화가 무르익어 통일을 성취하고, 통일 사회에서 다시 평화를 추구하는 여유 있고, 긴 안목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평화학의 대가인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평화를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 평화

(positive peace)로 나누었다.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인 폭력의 부재이며, 적극적인 평화는 구조적이며, 문화적 폭력의 해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갈통에게 있어 평화란 단순히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닌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갈통의 평화에 대한 정의를 통해 우리의 통일을 바라보면 통일 자체가 평화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통일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선결 조건인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평화의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이다. 구조적, 문화적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쟁과 폭력의 불씨는 어디에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러한 갈통의 통찰은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오랜 전쟁의 역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얻은 귀한 결과물이다. 지난한 종교 전쟁과 정복전쟁, 양차 세계대전의 중심지가 유럽대륙이었다.

1795년 노년의 대 철학자 칸트(Immanuel Kant)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조약의 전제 조건을 담은 가상의 평화 조약인 『영구 평화론』을 출판하였다. 그 내용은 국가 간의 조약 형식을 바탕으로, 평화를 위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조건들이 나열 되어 있다. 칸트에게 있어 평화는 전쟁의 종식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쟁은 다시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은 유례없는 엄청난 희생을 낳았다. 2차 세계대전은 칸트적인 입장에서 보면 독일의 공화주의에서 전제주의로의 기형적인 전환이 만든 전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갈통이 말하는 구조적이며 문화적인 평화가 그들 내부에서 파괴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다.

필자는 12년 전 영국의 한 호텔에서 독일 나치의 친위대 군인이었던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전후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옥살이를 마친 후에 목사가 된 인물이었다. 그는 이미 영국 BBC에 출현해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사과했으며, 자신이 목사가 된



지금 읽기

『영구 평화론』

임마누엘 칸트.

박환덕·박열 옮김.

서울: 범우사, 2015.

과정을 설명한 경험도 있었다. 그가 내게 들려준 2차 세계대전 직전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상황은 왜 독일의 순진한 일반인들이 전쟁을 반대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해 주었다. 그 당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최악의 실업률로 젊은이들은 직업을 구할 수 없었으며, 젊은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미래는 암담했다. 이에 비해 유대인들은 당시 경제계와 학계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 히틀러는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고, 유대인을 원흉으로 지목하고 그들을 말살하려 했다. 국가적인 살판의 도구로 전쟁과 홀로코스트가 사용된 것이다.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는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은 내부에서 끓어터져 외부로 드러난 피고름 같다는 것이다.

4. 평화를 위한 준비 그리고 통일

이쯤해서 우리는 평화를 위한 통일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평화통일은 우리 내부의 평화(적극적 평화)를 위한 준비 없이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어찌해서 외세의 압력이나, 일부 극우주의자들의 기대처럼 북한이 내부적인 정치, 경제, 군사적 문제로 붕괴되어 흡수통일 되었다고 해



지금 읽기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요한 갈통.
강종일 옮김.
서울 : 들녘, 2000.

보자. 이러한 평화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겠는가? 통일이 평화가 아니라 또 다른 비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분단보다 더한 폭력과 비극이 통일 체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아무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이게 최악의 실업난과 못한 결혼 포기 자들로 가득한 우리 20대와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통일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두려움 아닐까?

통일은 단지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거나 가족애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북한의 전쟁도발과 핵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이는 정부 차원의 현명한 대처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새 정부가 이 일을 잘 해 주길 간절히 기도한다. 반면 소극적인 평화인 사회적, 문화적 평화는 정부만이 아닌 민간단체와 개인, 또한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승리자와 낙오자라는 말이 사라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다름이 틀림으로 오해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평화와 통일을 위해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준비해야 할 덕목들이다. 교회는 이 일에 부름 받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교부 히

에로니무스는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풀어 설명하였다.

“우리 식탁에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익숙해지면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도 손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통일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우리 곁에 있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우리가 그들을 방문자가 아닌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에 익숙해 질 때, 더 귀한 손님으로, 더 나아가 식구로 우리 식탁에 함께 할 것이다.



글 | 이춘성

라브리(L'Abri Fellowship) 선교회에서 간사와 국제 위원(International Member)으로 청년들과 구도자들을 위해 일했으며 합동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와 고신대학원에서 '직업과 소명'을 주제로 연구하여 기독교 윤리학 석사(Th. M.)를 하였다. 현재 세종시에 살면서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박사(Ph. D.)과정에서 '환대(Hospitality)'를 주제로 연구 중이며, 유성광명교회 협동목사이다.